

2015년 5월 후원회원 후원금 사용 내역시

<수입 내역>

후원금 입금 현황			
수입총액	25,100,876	전월이월금	4,321,406
지 로	2,734,650	우리은행	6,476,320
국민은행	5,275,000	하나은행	1,411,000
조흥은행	195,000	신한은행	1,450,000
외환은행	587,500	제일은행	360,000
농 협	1,455,000	기업은행	285,000
우 체 국	80,000	지정기탁	470,000

<지출 현황>

후원금 지출 현황			
항 목	베들레헴어린이집 베다니아의 집 벳들의 집 마고네공부방	세부내역	
인건비	7,650,000	보모(야간)3명, 주방 1명의 인건비, 세무사수임료	
주·부식비	2,944,240	주·부식비	
비품, 시설, 영선비	-	비품, 시설, 영선비	
활동비, 교통비	101,000	교통비, 봉사자 활동비 및 잡비	
의료비	100,430	약구입, 예방접종, 외래 진료비	
소모품비(생필품)	977,010	생활용품, 유아용품, 세제, 쓰레기봉투 등	
수도광열비	1,177,120	통신, 전기, 가스, 수도, 케이블, 전화비	
지원금	1,053,520	심리치료, 문화체험등보육지원, 중병 치료 지원금	
교육비	292,400	문구류, 책 등 유아교육자료, 한글반운영비	
행사비	41,000	행사, 문화체험비	
노동사목위원회	5,500,000	장기수선충당금, 지정기탁(산재, 진폐환우)	
후원회관리	2,644,000	소식지, 봉투, 우편비, 후원프로그램관리비	
지출총액	22,480,720	잔액(이월금)	2,620,156

<쉼터 이용 현황>

구 분	이월자	입소자	퇴소자	현재
베들레헴어린이집	31	0	3	28
베다니아의 집	5	1	1	5
벳들의 집	11	0	5	6
사랑의 집	11	0	0	11
마고네공부방	8	0	0	8



즐거움 중에도 주님을 섬기리

아침과 저녁의 쌀쌀한 공기와 한낮의 폭염이 온몸을 긴장시키며 피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감기에 걸리기 딱 좋은 날씨가 봄을 지나고 여름이 되어서도 계속되면서 저 자신과 주변의 사람들의 건강을 더 많이 생각하고 챙기게 됩니다. 주님의 평화와 은총이 후원자님과 가정에 머무시기를 기도합니다.

올해를 시작하면서 조금 더 활동적인 사목을 하겠노라고 결심을 했는데 상반기를 뒤돌아 보면서 제가 얼마나 이주민들과 함께 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계획했던 것만큼 사목하지 못했다는 것을 느끼고 부끄러웠습니다.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사목자가 아닌 관리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을 위해 기도를 소홀히 하고, 일을 바라보는 시각도 예수님의 눈이 아닌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사목방향도 많이 벗어난 것이 아니었나,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와 묵상은 세상 안에서 주님과 함께 대화하는 중요한 시간임을 알면서도 일과 휴식에 빠져버린 저를 확인하면서 하반기에는 더 노력해야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올해부터 저희가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사목의 대상은 난민입니다. 그래서 난민에 대하여 알아보고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을지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난민은 일반적인 생활이 곤란하거나, 전쟁이나 천재지변으로 곤궁에 빠진 이재민을 말하는데 최근에는 인종적, 사상적 원인과 관련된 정치적 이유

에 의한 망명자들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4년부터 난민을 받기 시작해서 2014년 말까지 9,539명인데 2014년 한해동안 신청자가 2,896명으로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자 중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난민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못하지만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아 우리나라에 머물 수는 있지만 의료보험이나 2세들의 교육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받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아직 이들을 위하여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현재는 난민을 돕고 있는 여러 기관들을 방문하면서 정보를 얻고 있는 수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루에 수천 명이 넘는 난민들이 목숨을 걸고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지중해를 넘고 있습니다. 교회는 더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을 도와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적은 수이었기에 보지 못했던 난민은 이주노동자와 결혼 이민자와 그 가족들과 더불어 우리 모두의 관심과 함께 살아가야 할 새로운 동반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오로가 티토에게 전한 편지의 끝인사로 저의 인사를 대신하려 합니다. "우리 신자들도 선행에 전념하는 것을 배워, 남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들을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모두 그대에게 인사합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은총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빕니다"(티토 3,14-15).

상반기를 마무리 하며 이주사목위원회 부위원장
김평안 마르코 신부

공지사항

1. 후원미사 안내

매월 세 번째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를 봉헌합니다.

7월 후원미사는 20일, 8월 후원미사는 17일, 9월 후원미사는 21일에 봉헌합니다.

참석하실 수 있는 후원회원은 노동사목회관으로 오세요. 감사합니다(문의: 02-924-9970~1).

2. 필리핀공동체 산타크루잔 행사

산타크루잔 행사는 종교적 의미를 갖는 필리핀 전통 행사입니다. 이 행사는 5월 한 달 동안 예수님의 어머니이신 동정 마리아께 꽃 봉헌(특히 어린이들이 봉헌)을 하고, 마지막 날인 5월 31일에 성모님을 모시고 행렬하는 행사입니다.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쥐고 있는 헬레나 여왕이나 천사, 성모님을 상징하는 전통 의상을 입고 참석합니다.

역사적으로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수백 년 전, 신성한 십자가 앞에서 전쟁을 해도 될지 물었고, 그리스도교로 개종하고 전쟁에 승리하여 정복한, 그리스도인 첫 번째 로마 황제입니다. 그의 어머니인 헬레나 여왕은 서기 326년에 성지 순례를 가서, 예수님께서 매달리셨던 나무로 된 성스러운 'INRI'의 십자가를 발견했습니다. 이 십자가를 'Santa Cruzan'이라고 부릅니다.

이와 같이 종교적 행사인 산타크루잔은 헬레나 여왕이 예루살렘에서 성스러운 십자가를 발견했던 당시를 재연 또는 기념하며 성모님을 모시고 성전에서 성전으로 동정 마리아와 관련된 노래를 부르고 묵주기도를 바치며 이동하는 필리핀 전통 행사입니다. 그리고 행렬의 끝은 성모님께 꽃을 봉헌하는 것입니다.

동정 마리아께 드리는 이 전통적인 행사는 예수님의 어머니에 대한 공경이며, 예수님께 대한 우리의 깊은 믿음과 한 분이신 주님과 좀 더 가까워지고자 하는 마음을 표현합니다.

이런 의미로 이주사목위원회 산하 필리핀공동체는 5월 31일에 필리핀공동체 센터에서부터 혜화동 성당까지 성모님을 모시고 행렬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행사에 필리핀인 외의 다른 국가 사람들도 참석하여 모두 1천 명이 넘는 이주민들이 함께 하였습니다.

